

'무등, 시대의 스승을 품다-오방·석아·의재展' 31일까지 의재미술관

# 3인의 선각자들... 그들이 살아온 시대를 이야기하다

오방 최홍중(1880~1966), 석아 최원순(1891~1936), 의재 허백련(1891~1977). 이들은 우리나라 근대사뿐 아니라 광주의 근대사에도 큰 영향을 끼친 지도자들이었다. 오방은 종교지도자였으며, 석아는 독립운동가였고, 의재는 남도를 대표하는 문인화가였다.

이들을 한데 묶을 수 있는 근원은 '무등산'이다. 한때 무등산에 머무르면서 소외된 자들과 동고동락하며 교육, 사회운동, 계몽활동에 앞장섰다.

최홍중 목사, 최원순 독립운동가, 허백련 문인화가를 조명하는 전시가 열려 눈길을 끈다.

오는 31일까지 의재미술관에서 열리는 '무등, 시대의 스승을 품다-오방·석아·의재展'이 그것. 이번 전시는 이들 3인의 선각자들이 살아온 시대와 이들이 기거했던 무등산과 춘설헌 이야기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의재미술관 인근 춘설헌 터는 이들 세 사람과 인연이 깊다. '춘설헌(春雪軒)'은 원래 석아정(石岬亭) 자리였고, 오방정(五放亭)이 들어섰던 곳이었다. 당시 이곳은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명사들이 찾을 정도로 호남 제일의 인문학 살롱이었다. 조정 변관식, 지운 김철수, 다석 유영모, 노산 이은상, 함석헌 등이 드나들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세 사람의 인연과 아울러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흔적들을 엿볼 수 있는 자료들을 만날 수 있다.

광주 출신 최초 목사인 오방(五房) 최홍중은 3·1 만세운동에 참여해 옥고를 치렀고 광주 YMCA 설립을 주도했다. 나병환자와 걸인들을 돌보는데 일생을 헌신해 '광주의 성자'로 불린다. 오방(五放)이란 5가지 속된 욕심인 식욕, 색욕, 불질욕, 명예욕, 생명욕을 버리고 마음을 비운다는 의미다.

"평신도의 각성을 시급히 요구합니다. 평신도만 깨고 보면 현재

최홍중 목사·최원순 독립운동가·허백련 문인화가 무등산·춘설헌에 머물며 교육·사회운동·계몽활동

교계에 등장한 양의람심적(羊衣狼心的) 가목자(假牧者)들이 절로 무대를 잃고 퇴장할 것이며, 조선장로교 총회가 참으로 하늘의 장자(長者)의 총화와 같이 거룩한 통일적 총회가 될 것이요."

최홍중이 1937년 2월에 '교역자의 반성과 평신도의 각성을 촉함'이라는 글에서 강조한 내용이다. 그는 작은교회-평신도 운동을 주장했으며 1958년에는 무등산 원효사 아래에 폐결핵환자수용소 송등원을 세우고 환자들을 돌봤다.

석아(石岬) 최원순은 3·1운동의 도화선이 됐던 2·8독립운동을 주도했던 민족운동가다. 그는 이광수가 작성한 2·8독립선언서를 1주일간 철야작업을 해 인쇄했다. 부인인 현덕신과 함께 일제의 감시대상인 블랙리스트에 오른 요주의 인물이었다.

'석아'는 돌방어리라는 뜻이지만, 그는 조선의 독립을 위한 일에는 기개를 잃지 않았다. 동아일보 기자 시절(후일 편집국장 역임), 1926년 일제의 필화사건으로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그가 출입처였던 조선총독부 초청 행사에 유일하게 한복을 입고 참석한 일화는 유명하다. 일제에 조선사람의 자긍심과 기개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총독정치에 대한 비평(批評)이야말로, 정말 기발(奇發)하다. 현재의 총독정치는 조선인을 이롭(利)게 하고 이익(益)되게 하는 인사는 박해하고, 배척 하면서도 조선인을 해롭게 하고 불리게 하는 놈들은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방침이라고, 그러므로, 말하기를, 총독정치(總督政治)는 악당(惡黨) 보호정치(保護政治)라고"(동아

일보 '횡설수설' 1926년 8월 22일)

의재(毅齋) 허백련은 화업 외에도 여러 방면에서 훌륭한 업적을 이뤘다. 무등산 춘설헌에서 그림을 그리면서도 농업기술학교를 세워 농업 지도자를 길러냈다. 또한 학생들과 함께 차밭을 일구어 차 보급에도 힘썼다.

"나는 차를 마시고 앉아 있는 그들을 보며 내 한평생이 춘설차 한 모금만큼이나 향기로운 단가를 생각하고 얼굴을 붉히곤 한다. 무등산에 해가 지면 그들조차 돌아가고 나는 혼자 누워서 빈손을 허공에 휘두른다. 아직도 그리고 싶은 그림이 많아 그렇게 허공에 그림을 그리고 누워 있는 것이다."(의재 허백련의 말)

전시장에는 그동안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다양한 사진과 서신이 비치돼 있다. 또한 동요창작자의 면모를 보인 최홍중 목사의 새로운 자와 먼저 세상을 떠난 최원순을 추억하는 철인시로 된 편지도 볼 수 있다.

한편 오는 24일 전통문화관에서는 '무등산의 광주 근현대 선각자 오방·석아·의재를 조명하는 심포지엄'도 있을 예정이다. 이들의 삶을 연구해온 차준순 전 호남신학대 총장, 이대순 조선대 교수, 이선욱 의재미술관 관장이 3인 선각자들의 삶과 철학을 발표한다.

최원순의 손자인 최영훈 화가는 "최홍중 목사, 허백련 선생과 함께 저의 조부인 최원순 할아버지 삶과 생애를 기리는 전시가 의재미술관에서 열린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감격스럽고 감사할 일"이라고 말했다.

전시를 기획한 양성현 씨는 "오방·석아·의재 세 분은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던 분들"이라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시대의 스승 들을 만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김영민 작 '공고상'

## 아름다운 전통소반

'차림;기다림'전, 29일까지 롯데갤러리

'소반(小盤)'은 한국 좌식 문화의 정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공예품 중 하나다. 조리한 음식을 방으로 옮겨와 식사를 해야했기에 소반은 이동이 용이하고 실생활에 자주 쓰일 수 있는 작고 낮은 크기로 제작됐다. 멀리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부터 역사를 가늠할 수 있는 소반은 다른 전통가구와는 다르게 계층과 지위를 막론한 생활필수품으로 우리 전통 식문화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

롯데갤러리가 우리 전통 소반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획을 마련했다.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는 '차림;기다림'전은 전통 밥상문화의 묘미와 함께 우리만의 생활미학을 엿볼 수 있는 기획전이다.

이번 전시에는 전통소반과 현대 목공예 작업을 진행하는 김영민·한우석 작가를 초대했다. 김 작가는 '우리나라 3대 소반' 중 하나인 나주반의 전수조교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제99호 소반장 이수자로 한국 3대 소반장인 부친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또 한국과 영국에서 가구디자인을 전공한 작가는 물·바람·산수 등 자연의 요소요소를 절제된 미감으로 해석, 동양의 정신성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선보여 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나주반과 함께 생활과 유리되지 않는 탁월한 조형미가 살아 숨 쉬는 전통 소반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지역적 특색은 물론이고 그릇의 무게와 기후, 쓰는 이의 생활 방식까지 고려한 한국의 소반에는 생활과 유리되지 않는 탁월한 조형미가 살아 숨 쉰다. 또 소반은 단순히 '물건'이 아닌, 자연의 시간과 장인의 시간이 한데 어우러진 '작품'으로서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전시와 연계한 다양한 관객 참여프로그램도 열린다. '나만의 소반 만들기'는 오는 19일(오후 3시~5시·선착순 10명) 유료로, '육각연필꽃이 만들기'는 전시기간 중 주말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100개 한정으로 무료 진행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춘설헌



2·8독립선언 주역들인 조선청년독립단원들. (원 안이 최원순)



오방 최홍중이 최원순기의 스토리를 7연시로 풀어쓴 편지.

## 16개 작품 어디서든 본다

예술위, 내년 2월까지 공연실황 생중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는 내년 2월까지 뮤지컬, 오페라, 연극, 무용, 전통공연 등 총 16개 작품 공연실황을 생중계한다고 밝혔다. 공연실황 생중계는 공연예술 관객의 저변을 확대하고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예술위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처음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공연실황 생중계 사업'에 선정된 공연들은 네이버TV와 V LIVE를 통해 동시 송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시범사업 때 공연 생중계 회

당 시청자 수 1만5000여 명 수준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일 오후 7시부터는 낙산공원 중앙광장 무대에 오르는 뮤지컬 '행보'를 생중계한다. 뮤지컬 작품으로는 처음 야외에서 라이브 밴드와 함께 작품의 분위기를 9명의 배우가 무대를 꾸민다. 예술위 관계자는 "대다수 공연이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소외되는 경우가 많은데 작품성과 대중성을 갖춘 공연을 원하는 장소에서 웹과 모바일로 편하게 관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만족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공신 명세서인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신양파크호텔 12월 송년모임 특별 감사이벤트**

한 해를 마감하는 귀하의 소중한 모임, 귀하를 위한 특별 혜택을 준비하였습니다.

**12월 송년모임 혜택 (연회행사시 적용)**

- 각 연회장 메뉴 ..... 10% 할인
- 음료·주류 ..... 50% 할인
- 객실 이용권 증정
- 현수막 1ea 무료제공 } ※50명 이상 행사시 적용
- 빔프로젝트 무료제공

**신양파크호텔 휘트니스클럽**

특별회원 모집 [개인 (월) ₩300,000원] - 회원 특전 -

- 사우나, 체력단련장, 수영장 무료이용
- 레스토랑 이용시 ..... 10% 할인
- 객실 이용시 ..... 50% 할인
- 요가, 에어로빅, 수영 단체레슨 무료

문의 및 예약 ☎ (062)221-4101~3, 228-8000

Shin Yang Park Hotel